

# 금일 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 축사

2021. 9월 / 금일초등학교

자랑스러운 금일 초등학교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입니다.

금일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문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신우철 군수님, 신의준 도의원님, 서광재 조합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일초등학교 100년의 역사를 오늘 함께 하고 계시는 박호심 교장선생님과 한승옥 추진위원장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일초등학교가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전 사립 금일 보통학교로 시작된 금일초등학교가 굴곡의 세월을 이겨내고 졸업생 6천9백여명을 배출한 우리지역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100년의 역사가 우리세대에서 멈출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금일초등학교 재학생은 6개 학급 70여명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수산업의 위기는 지역 소멸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일초등학교 동문여러분!

하지만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완도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추진한 고흥~완도 해양관광도로가 사업추진 20년만에 국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앞으로 9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42km의 구간에 5개의 교량이 연결되어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접근성 개선으로 우리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렇듯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금일초등학교 학생들이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동문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또한, 우리 아이들은 경쟁보다 협력, 배려의 가치를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완도군의회에서도 교육 환경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인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200주년 기념식이 열리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완도군의회 의원 조인호